창 길잡이의 집 돕기 사랑의 바자회

대학등록금 · 시설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

창 길잡이의 집은 10월12일 일요일 오전10시부터 오후8시까지 신봉초등학교에서 제3회 사랑의 바자회를 개최했다.

창 길잡이의 집(대표 김성진)은 10월12일 일요일 오전10시부터 오후8시까지 신봉초등학교에서 제3회 사랑의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날 바자회는 내년에 대학에 입학하는 가족들의 등록금 마련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신봉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바자회에는 지난 1년 동안 후원자들이 기증한 여러 물품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가족의 대학등록금을 마련을 위해 실시됐다.

아울러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 중 일부는 창 길잡이의 집 시설 부지를 마련하는데도 사용할 계획이다.

현재 부지는 2010년까지 임대한 것으로 그 이후에는 자체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후원자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바자회에는 지역 인사들을 비롯해 지역주민들이 찾아와 도움을 주었으며 특히 신봉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이 내일처럼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바자회에서 판매한 물품 후원단체 명단은 다음과 같다.

▶포천시의회 ▶송우4리 마을 노인회 ▶소흘읍사무소 ▶신서울 라이온스클럽 ▶신봉초등학교 ▶신봉초교 운영위원회 ▶신봉초교 학부모회 ▶창 길잡이의 집 운영위원회 ▶치코라인 ▶성진 ▶우연제화 ▶알라딘상사 ▶삼락교회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산자수명 제5회 포천미술실기대회 시상식

(사)한국미술협회 포천지부(지부장 이경진)는 10월18일 오후3시 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山紫水明 제5회 포천미술실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9월20일에 개최한 미술실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으로 (사)한국미술협회 포천지부가 주최하고 산자수명 제5회 포천미술실기대회 운영위원회가 주관했으며 포천시와 포천시의회, 경기도 포천교육청, 한국미술협회, 한국예총 포천지부가 후원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각 부문에서 최다 입상자를 배출한 왕방초등학교가 단체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지도교사상은 포천여중 손리주 교사가 받았다.

(사진 조성구 기자)

추천! 이야기 한마당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

이보용
본지 자문위원장

어느 마을에 명의가 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모두 그를 찾아가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그 의사도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됐다.

마을 사람들은 임종을 앞둔 의사를 찾아가 울부짖었다. "이제 우리의 질병은 누가 고쳐줍니까"

그때 명의는 간신히 힘을 내어 이렇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훨씬 훌륭한 세 명의 명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소. 그 의사의 이름은 '음식'과 '수면'과 '운동'입니다."

가벼운 음식과 깊은 잠과 적당한 운동은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는 의사다. 그러나 육체보다 훨씬 중요한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는 명의가 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랑이다.

증오 시기 질투 비교의식은 사람의 건강을 갉아먹는 벌레다. 관용 이해 봉사 섬김은 건강을 지켜주는 양약이다.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장수한다.

-오늘의 묵상 중에서-

(문의 011-342-5834)

종합우승 포천클럽 준우승 은광클럽 차지

제6회 포천시체육회장기배드민턴대회 결과

포천시배드민턴협회는 10월12일 대진대학교 체육관에서 시민의 건강과 시민 차원의 축제의 장 마련을 위해 제6회 포천시체육회장기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했다.

포천시배드민턴협회(회장 양호식)는 10월12일 대진대학교 체육관에서 시민의 건강과 시민 차원의 축제의 장 마련을 위해 제6회 포천시체육회장기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포천시 관내 13개 클럽 350여팀 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만20세 이상 4개조, 만40세 이상 4개조, 만50세 이상 2개조, 만60세 이상 1개조로 구분해 경기가 실시됐다.

이날 대회는 경기상과 청결·질서상으로 나눠 실시하여 경기상은 종합우승팀에 우승기와 트로피, 준우승 트로피, 3위 트로피를 수여하고 청결·질서상은 1위 상금 20만원과 트로피, 2위 상금 10만원과 트로피, 3위 상금5만원과 트로피를 수여했다.

이날 대회결과는 다음과 같다.

ㅁ경기상 ▶종합우승 포천클럽 ▶준우승 은광클럽 ▶3위 반월클럽 ㅁ청결·질서상 ▶1위 송우클럽 ▶2위 은광클럽 ▶3위 반월클럽

이날 경기에 앞서 그동안 포천시 배드민턴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가졌다. 다음은 이날 수상자 명단이다.

ㅁ포천시장상 ▶구광식 포천시배드민턴협회 부회장 ▶고인옥 포천시배드민턴협회 부녀회장 ㅁ포천시의회 의장상 ▶장인학 포천배드민턴클럽 총무 ▶박정애 관인배드민턴클럽 총무 ㅁ포천시배드민턴협회장 공로패 ▶원상순 가산배드민턴클럽 부회장 ▶노후균 송우배드민턴클럽 회원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제1기 한과전문기능인 37명 배출

한과문화박물관, 포천을 전통한과의 고장으로

한과박물관 한가원은 10월16일 제1기 한과전문기능인 37명에 대한 수료식을 개최했다.

한과박물관 한가원(원장 김규흔)은 10월16일 제1기 한과전문기능인 37명에 대한 수료식을 황일현 농협 시지부장, 신영필 일동농협조합장, 고훈태 소흘농협조합장, 이상용 영북농협조합장, 이수기 관인농협조합장과 수료생 및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은 7월24일 교육을 시작해 이론 및 워크샵과 세미나, 실습 및 평가, 해외연수 등 모두 150시간을 이수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림수산부와 유통교육원이 주최하고 한과문화박물관 한가원 주관으로 한과제조기능인 양성을 통해 창업하고자하는 농민, 혹은 농식품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농산물유통개혁 및 농식품 진흥을 선도할 인적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한가원은 세계최초로 한과를 테마로 세워 다양한 정보와 유물전시를 통해 한과를 널리 알리기 위한 한과박물관과 직접 만들어보고 체험함으로써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과문화교육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웃음 넘치는 세상 만들기 ⑫

웃음꽃 피는 경로당(2)

빨리 오세요. 시간이 다 되었어요. 강사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학생들이 빨리 와야지 기다리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미안함과 힘이 들어가는 목소리를 들으며 새롭게 생기를 느끼게 한다.

강사님이 오셨다는 말에 하던 일 뒤로하면서 경로당에 들어선다.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미안해서 어떡하나! 하시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시고 모두가 정해진 시간에 그래도 이십여분이 모여야 한다는 것에 힘겨워 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래도 많이 오셨네요~ 오신 분들끼리 웃음 나누면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자~ 어깨 좀 쫘아악 피세요.. 그리고 얼굴을 한번 마주 보세요.

꽃 봉우리 졌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며 얼굴을 모아 보세요. 그리고 꽃이 활짝 피듯 아 하~ 소리 크게 하면 입을 쫘~아악 펴 보세요.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쁘게 보이는 지... 자~ 한 분은 가만히 계시고 한 분은 얼굴의 변해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시작~~ 하는 소리에 맞춰서 하시니 가만히 계시던 분까지 웃음이 절로 난다. 얼굴을 모았다가 다시 활짝 피는 것을 여러 번 나누어서 하면 자연스럽게 안면근육 운동과 웃음운동이 함께 하게 되는 것이다.

마음을 열고 가슴을 나누고 거기다 웃음소리 크게 하면 더 없이 멋진 모습으로 재 탄생하는 것이다. 길가에 코스모스 만개하듯이 어르신들의 가슴마다 웃음꽃으로 만발 할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값진 모습은 없을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은 무슨 꽃이지요? 물으면 웃음꽃이라며 웃음 짓는 모습도 경로당이 흔들릴세라 크게 웃다보니 유리창 방충망이 떨어져 또 한번의 웃음을 자아낸다. 얼굴을 지나 어깨로 갔다. 얼씨구 절씨구 하시면서 저를 따라 하세요. 얼씨구 얼씨구 짝짝~ 절씨구 절씨구 짝짝 얼씨구 짝 절씨구 짝 얼씨구 절씨구 짝짝하면서 어깨 돌리기를 같이 하니 서로 틀린다고 웃음으로 일관하신다.

오랜만에 어르신들이 유치원생과 똑 같은 모습을 하고 계신 것이다. 어린 아이였을 때 하루에 몇 번의 웃음을 웃는가? 통계상 하루에 400여 번 웃는다고 한다. 하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웃을 일이 없어서 웃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웃음에 인색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 했던 게임이나 스팟으로 마음을 돌려놓고 그 속에서 웃음을 찾아간다면 그것이 더 효과적인 면이 많다.

"이것은 예전에 내가 한 적이 있어"하시며 손수 시범을 하시는 모습에서 천진스러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제 경로당에 웃음꽃이 필 것이다. 황금 들녘이 풍성한 것처럼 어르신의 마음에도 열매 맺는 멋진 웃음으로 피어갈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김순희 웃음치료사문의 : 018-222-1790

단결력과 합동심 보여줘

제5회 포천동민의 행사 개최

제5회 포천동민의 날 행사가 10월11일 포천초등학교에서 기념식, 유공동민 표창, 문화행사 순으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친목도모를 위해 준비한 문화행사를 진행함으로써 포천동민들의 단결력과 합동심을 보여주었고 포천동이 포천시 발전에 일조 할 수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포천동사무소, 체육회,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단체장 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제5회 포천동민의 날 행사는 포천동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 졌으며 OX 게임, 사과깍기 게임, 쌀 들고 오래서 있기 게임, 줄다리기 우유빨리 먹기 게임, 선물낚시 게임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행사의 재미를 배가 시켰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실시한 시상식에서 표창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ㅁ포천시장상 ▶현금열(신읍동) ▶왕영순(신읍동)ㅁ국회의원상 ▶양준모(신읍동) ▶권보경(신읍동) ㅁ포천시의회의장상 ▶최철수(신읍동) ▶윤미숙(신읍동)ㅁ포천동장상 ▶우인식(선단동) ▶오완순(선단동) ▶이경우(신읍동) ▶이현숙(어룡동) ▶박승옥(신읍동)

김연택 기자 uralism@nate.com

5회 포천동민의 날 행사 기념식에서 윤미숙씨(주부명예기자단 포천동지부장)가 이중효 포천시의회 의장 표창장을 받고 있다.